

“해남교육 응원합니다”... 장학기금 500억 조성 기탁 행렬

조영천 전 교육장·노인회 황산면분회·해남전문건설협회 등 전달

“해남 교육에 응원을 보냅니다.”
 해남군은 군이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에 나선 가운데 의미있는 기탁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에는 조영천 전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임기를 마무리하며, 해남군에 장학사업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조영천 전 교육장은 해남 출신으로 2021년 해남교육지원청 제30대 교육장으로 부임해 올해 8월 퇴임했다.
 해남 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사 권익 보호 뿐 아니라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 해남군 교육재단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해

남교육 발전을 이끌어왔다.
 조영천 전 교육장은 기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장학사업기금 500억 달성에 한 걸음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교육 현장에 복귀해서도 항상 해남 교육의 발전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대한노인회 황산면분회에서도 최근 회원들의 뜻을 모아 200만원의 장학사업기금을 기탁했다. (사)대한노인회 황산면분회는 황산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됐으며 16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이종학 회장은 “과거와 달라진 교육방식의 변화나 다양한 가치관의 발현으로 세대 간 오해가 깊어지고 서로 대화를 피하게 되는 것 같다”며 “노인회에서 마련한 기금이 신규세대 간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화합과 단결의 소중한 씨앗을 틔우는 데에 쓰이기를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해남군전문건설협회(회장 박병태) 및 회원사 일동은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에 500만원을 기탁했다. 협회는 해남군이 추진중인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 캠페인과 관련해 매 2년마다 장학사업기금을 기탁하겠다는 협약도 체결했다.
 박병태 회장은 “경기침체로 건설업 현황이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지역의 미래인 건설인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힘을 모태기로 회원사들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의 교육 발전을 위해 장학사업기금 조성에 힘을 보태주시어 감사드리며, 가장 교육하기 좋고, 아이키우기 좋은 해남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군수 신우철·앞줄 오른쪽 5번째)이 지난 14~15일 숙박시설 투자 유치를 위한 관계자 초청 행사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해양치유센터 11월 개관 앞두고 호텔 투자사 등 20여곳 초청 투자 설명회

대형 숙박시설 유치 팸투어

완도군이 오는 11월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앞두고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에 나섰다.
 완도군은 지난 14~15일 이틀간 국내 호텔 투자사·운영사 관계자 20여 명을 초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문가 관광에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롯데호텔, 이랜드파크 등 운영사와 유전자산운용, 캐피탈랜드 등 투자 금융사, 에이치피엔파트너스, 오륜산업개발 등 개발사, 건축사, 회계법인사, 호텔 디자인사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관광객 1000만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관광 참가자들은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과 완도읍 과수연구소, 청산도 등을 찾아 투

자 여건을 살펴봤다. 오는 11월 문을 여는 해양치유센터 공사 현장도 찾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역 현안과 투자 여건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제안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을 역점 사업으로 잡았으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물물관 건립,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은 앞으로 투자 기업 설명회, 해외 투자 활동 등 다양한 민간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쳐 해양관광도시 조성에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팸투어가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완도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대한민국 지방지킴’ 대상...햇빛연금 등 호평

섬 특성 살린 다양한 정책 높은 점수

신안군이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대한민국 지방지킴 시상식’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난제인 지방소멸과 인구절벽에 대해 성과를 보인 혁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진행해 7부문의 9개 우수기관(대상: 신안군, 구평)을 선정했다.
 신안군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추진하였고, 섬의 특성을 살린 우수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햇빛연금)’의 시행으로, 2021년 4월부터 주민 1만700여 명에게 총 84억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으며, 햇빛연금이 적용되는 5개 지역(완도, 자라도, 지도, 사옥도, 임자도)에서는 (2022년 대비) 인구 151명이 증가하는 기적을 이뤘다.
 또 신안군은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 어선 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이 사업이 국가 시책으로 반영될 만큼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1004골’ 개체굴 양식 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넓은 면적의 바다와 1004개 섬이라는 청정지역의 육지와 바다의 자연 조화 속에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섬 국가정원 사업



‘대한민국 지방지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은 박우량(가운데) 신안군수와 최미숙(왼쪽) 전남도의원, 김형성 신안군의회의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누구나 솔깃할 만한 앞으로 3000억대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주민 이익배당금 발생 등으로 귀촌 희망자들이 1순위로 신안을 손꼽고 있던 조건 중 일부이다.
 이와 같은 성과를 위해 박우량 군수는 정부 정책을 토대로 세계와 시대에 걸맞게 세계 시장을 뚫아들면서 노력하고 있다.
 신안군은 이러한 노력 끝에 2021년부터 인구 감소세가 둔화하기 시작해 올 2월부터 인구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8월 말 현재 신안군 인구는 3만

8126명으로 2022년 말 대비 268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신안군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도 2021년 대비 약 47% 증가한 총 692만명에 달할 만큼 지역 활력이 되살아나면서 앞으로 신안의 변모가 기대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주민의 자긍심이 넘치는, 신안의 100년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공직자와 의회가 협력해 청년이 돌아오는 신안, 살고 싶은 신안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조선산업 인력난 ‘숨통’

외국인 112명 60곳 조선기업 연결

영암군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지역의 지역기업 취업을 지원하며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 등 인력수급의 숨통을 트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영암군이 기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기 전에 이들에게 생산 현장 요구 기술과 직무 역량을 교육하고, 거주비자인 F-2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전남도와 영암군, 해남군이 함께 추진 중이다.
 지역 전략산업인 조선산업의 수주 회복에 따른 생산·기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영암군은 사업 배경 인원 112명을 모집해 지역 조선기업 60곳에 채용을 연계했다.
 모집인원 112명 중 외부 유입자는 70여 명으로 지역 내 생활인구를 유입 효과도 톡톡히 봤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오는 22일 산호초 호텔현대

바이라한에서 영암군의 성과를 포함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서 사업 참여 기업체와 우수 인력의 만족도 조사, 건의사항 청취 시간을 갖고, 내년 실시될 본 사업의 내실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 주력산업이었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조선산업에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제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신안군 22일부터 이틀간 홍도서 ‘섬 불불락 축제’

신안 홍도의 명물 불불락이 전국 강태공을 부른다. 신안군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홍도에서 ‘섬 불불락 축제’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서해의 보석인 홍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됐다. 7월이면 노란색 월추리 꽃으로 옷을 갈아입고, 가을엔 붉은 불불락이 제철이다. 축제는 해상 행진을 시작으로 불불락 버거 만들기, 수산물 짬뽕 경매, 선상 낚시체험, 불불락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선상 낚시체험은 전국의 낚시꾼들에게 잊지 못할 손맛을 전해 줄 예정이다.
 홍도의 대표수산물인 불불락은 일명 ‘열기’로 불린다.
 섬유질이 풍부한 저열량 고단백 어종으로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으며 불포화지방산(DHA) 함유량이 많아 기억·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맥경화 등 심혈관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다.
 그물과 낚시로 주로 잡는 불불락은 매운탕과 회



오는 22~23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에서 ‘섬 불불락 축제’가 열린다. 지난해 축제 모습. (신안군 제공)

로도 먹지만 내장과 뼈를 제거하고 해수에 염장한 뒤 해풍에 말려 구워 먹어도 맛있다.
 홍도 불불락잡이 어선 20여 척은 연간 15t(1억 5000만원 상당)을 잡는다.
 가격은 1kg당 1만원이다.
 홍도로 가는 교통편은 목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이 1일 2회 운항 중이며, 2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진도군 공직자 대상 ‘인구변화 대응 교육’

진도군이 최근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대응 교육(사진)’을 진행했다.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에는 인구전문가인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구본진 강사가 강단에 섰다.
 그는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준비’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강의 내용은 저출산·고령화 극복 방안과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예측, 지방소멸의 원인,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 등이 담겼다.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해 이해를 도왔다.
 진도군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결혼 장려금, 난임 치료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등 인구시책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전입장려금 지원과 귀농어업인 정착 지



원, 일자리, 주거, 교통, 장학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인구감소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을 포함한 무엇보다 중요한 균형 과제”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군 산하 공직자들이 인구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활력이 넘치는 진도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영광군,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참가업체 모집

영광군이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온라인 주문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이며, 테이블 오더, 디지털 메뉴 보드, 서빙 로봇, 무인 판매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도입비의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사업자등록증, 매출액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영광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광=김정환 기자 kcw@kwangju.co.kr

진도군,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진도군이 지역을 빛낸 군민의 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제48회 진도군민의 날(11월 1일)을 맞아 ‘진도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를 오는 10월 4일까지 접수한다.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개발과 복리증진에 기여해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상이다.
 공공복리와 교육·체육, 관광·문화예술, 복지·환경, 지역개발 등 5개 부문으로 부문별 1명씩 선정

할 계획이다.
 후보자 추천자는 읍·면장과 기관·단체의 장이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화합 등의 공적으로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개인과 단체 등이 많이 추천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